

**여귀 ‘매낙’이 말해주는 태국 사회:
젠더 이데올로기의 변화**
(What Mae Nak Tells Us: Female Ghosts and Thai Gender Ideology)

이지은 (Ji Eun Lee)

본 연구에서는 태국의 여귀 전설 ‘매낙’이야기가 영화화되면서 시대에 따라 변화된 서사구조를 통해 여귀 ‘매낙’에 ‘모성성 motherhood’과 ‘아내상 wifehood’ 등 여성성 캐릭터가 부여되는 과정을 살펴 태국 사회가 담고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33년 처음 영화에 등장한 ‘매낙’은 현재까지 총 24 편의 영화로 재생산되면서 개별성(Individuality)을 지니게 되었고, 한낱 ‘여귀’에서 ‘여신’으로 신성神聖까지 부여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캐릭터가 태국 사회의 가부장적제도 하에 전략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재현한 것이라는 의심에서 시작한다.

이지은(李知恩, Lee, Ji Eun, Ph.D.) 박사는 태국 방콕의 쫄라롱껀 대학교에서 태국학(문화)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와 서강대학교 열린동남아학교에서 강의했고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태국의 대중문화,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나 문학을 통한 사회현상, 정치, 종교의 변화 읽기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 한국영상위원회의 <한국영화 100 선>,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 전래 동화 모음집> 등 다수의 한국문학 번역서가 있다.

Date & Time: May 10 (Thur.) 2018, 12:00-13:00

Place: Concourse (3F), SNUAC (Bldg#101)